

대전 시민들의 장보기와 소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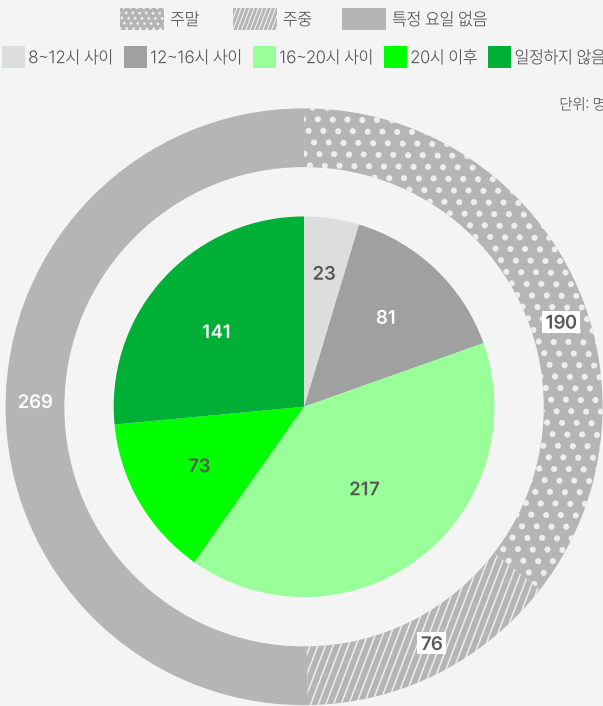
- 온라인 설문조사로 본 시민들의 장보기 특성-

대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대전 시민들의 장보기 방식과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대전 시민의 장보기 특성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20대 이상 대전 시민 697명이 참여했고, 이 중 535명의 유효 응답을 활용하여 자주 이용하는 장보기 장소, 선호 시간대, 주요 구매 품목 등을 분석했다. 대전 시민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장을 봤을까?

대전 시민들은 수시로 장을 보지만 주말과 오후 4시 ~ 8시 사이를 가장 선호

응답자 535명 중 269명은 요일을 정하지 않고 장을 봤으며, 요일을 정한 경우에는 주말(190명)이 가장 많았다. 장보기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시민들의 장보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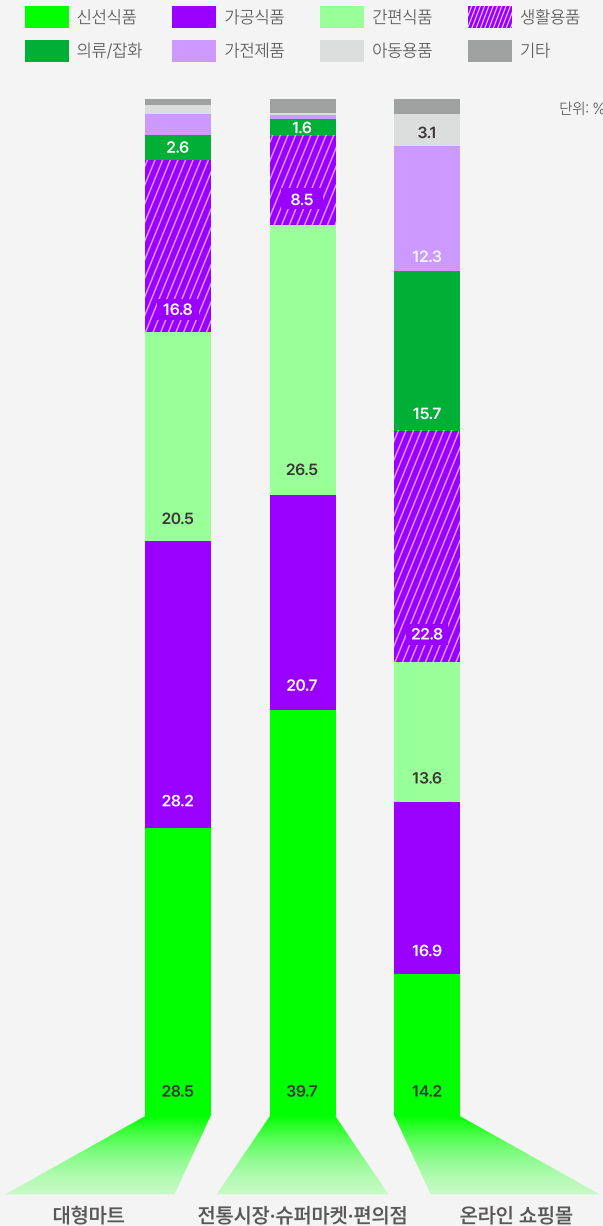


자료: 대전연구원, 대전 시민의 장보기 특성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인식 설문조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식품을 주로 구매

대전 시민들은 대형마트(77.1%)와 전통시장·슈퍼마켓·편의점(87.8%)에서 주로 식품(신선, 가공, 간편)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구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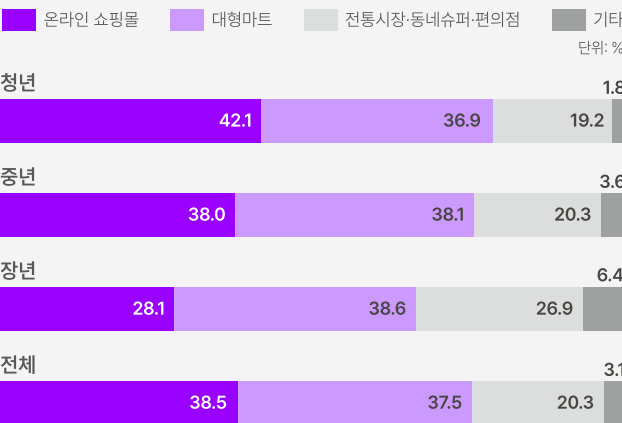
대전 시민들의 장보기 구입품목 비율



장을 볼 때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동네슈퍼·편의점 순으로 많이 이용

대전 시민들은 장을 볼 때 온라인 쇼핑몰(38.5%)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37.5%), 전통시장·동네슈퍼·편의점 (20.3%) 순이다. 장을 보는 장소는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 쇼핑몰을, 높을수록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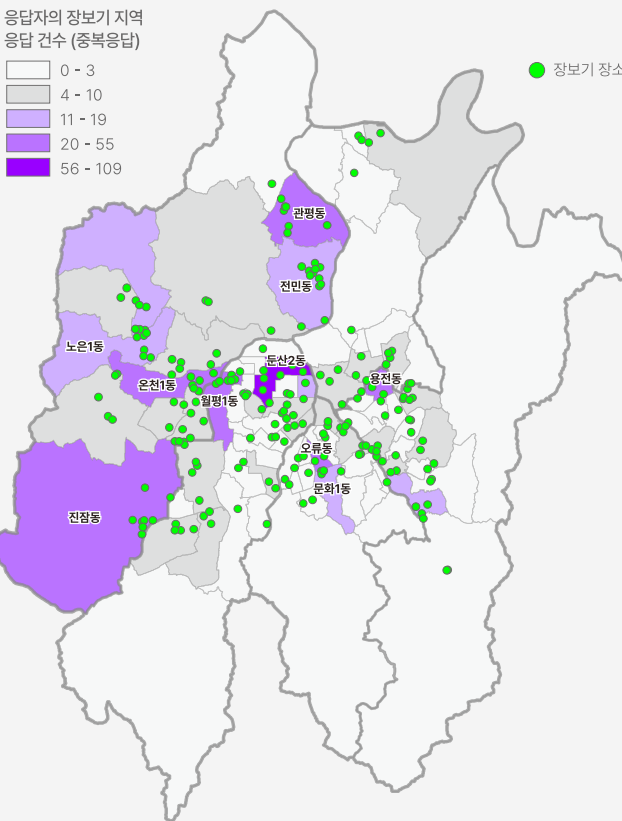
대전 시민들의 장보기 장소



자료: 대전연구원, 대전 시민의 장보기 특성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인식 설문조사
*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20~30대는 청년, 40대는 중년, 50대 이상을 장년으로 분류함

장을 보러 가는 주요 장소를 두 곳씩 선택하고, 중복된 응답을 합산해 분석했다. 그 결과 둔산동 대형마트가 95건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봉명동 대형마트 48건, 월평동 대형마트가 33건으로 뒤를 따랐다.

장보는 장소 분포도



연령대별 장보기 장소를 살펴보면 1위부터 6위까지 대부분이 대형마트였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1위는 둔산동에 위치한 대형마트로 확인되었다. (청년 58건, 중년 20건, 장년 17건)

청년층은 전체 324건 중 둔산동 대형마트를 58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봉명동 29건, 월평동 19건, 관평동·용전동·오류동 대형마트가 각각 15건 순이다.

중년층은 전체 168건 중 둔산동 대형마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월평동과 봉명동 대형마트가 각각 15건, 오류동 9건, 용전동 8건, 가오동 5건 순이었다.

장년층은 전체 116건 중 둔산동 대형마트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오류동 9건, 봉명동 4건, 용전동·문화동 각 3건, 노은동 슈퍼마켓 2건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장보기 장소는 대형마트 중심이었으며, 특히 둔산동의 대형마트가 연령대 구분 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자료: 대전연구원, 대전 시민의 장보기 특성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인식 설문조사